전남도, 중동정세 대응 중소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보험료 한도 상향·수출직불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나서

전라남도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해상 운임 상승, 물류 지연, 거래 불확실성 증가 등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환율 변동과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출대금 미회수와 환변동 등 손실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수출직불금)의 경우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보험, 물류, 해외마케팅 등 모든

수출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동지역 불안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이 대외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글로벌 성장 '지-유니콘' 주인공 찾는다

총 6억5000만원 투입 유망기업 5곳 육성… 4월10일까지 모집

투자자 교류·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 등 육성 프로그램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오는 4월10일까지 모집한다.

'지(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은 독보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규모 확대를 돕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창업 성장 지원 정책이다.

올해는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약 14개월간 집중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총 6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3개 기업에는 추가 지원 혜택도 준다.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이며, 신산업 기술분야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 5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선발은 ▲서류평가 ▲심층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진행하며, 기업의 성장성·기술력·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투자자 교류행사 및 기업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 ▲대·중견기업과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가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투자자 교류행사와 기업설명회(IR)의 날을 통해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및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스케일업본부(062-364-9158~9)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지(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광주를 대표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미·이란 전쟁' 광주전남 기업 10개 중 8개 직접 타격

광주연구원, 광주·전남 대응 모색 라운드테이블

해상운임 상승… 석유·화학·선박 가동 중단 현실화

소비자물가 0.33% 상승… "지역경제분석센터 필요"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0.33% 오르고 10중 8개 기업 직접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이 광주·전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학교 등 지역 금융·경제·무역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성환 광주연구원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장은 "경제 충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시경제 분석 모형(DSGE)을 통해 유가 20% 상승 시 광주전남 지역의 실질소비와 투자가 각각 0.6%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33%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별로는 에너지(-1.2%)→가공조립→기초소재 순으로 충격이 연쇄 전달되며 이미 LG화학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생산 중단·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셧다운·여천NCC 공급 불가항력 선언 등 전남 석유화학 산단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는 "단기 유류세 조정·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전담할 지역경제분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선대학교 이종하 교수는 "미·이란 전쟁이 국내 경제에 고유가·고환율·고물가 '3고(高)' 충격을 촉발했다"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69.8달러, 원·달러 환율은 1499.7원까지 치솟았으며 이 충격은 글로벌 해운 운임 폭등·내수 위축·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충격이 지역 경제에도 직접 파고들면서 기아자동차·백색가전 등 광주 핵심 산업의 채산성 악화, 중소 제조업체의 한계기업 전락, 지방재정 압박이 복합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과장은 "광주가 자동차·전자전기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남은 석유·화학·선박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2023년 9월 이후 20개월 이상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상공회의소 박시현 본부장은 "광주·전남 중동수출기업 38개사 대상 영향조사 결과 37곳이 중동 국가와 직접 교역중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및 물류비 차질이 최대 리스크임을 확인했다"며 "광주·전남 제조기업 109개사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4%가 중동 사태의 직접 영향권에 있으며, 사태 장기화 시 경영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이 93.6%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겪는 주요 고충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73.9%), 해상운임·물류비 상승(45.7%),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35.9%)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중동 사태가 지역 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단기 피해 지원과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팔 기자

광주·전남 수출기업 60% '중동사태' 직격탄… "물류비 비상"

무역협회 보고서, 중동 수출 비중 46.6%로 의존도 높아 '리스크 심화'

광주·전남 지역 수출 기업 10곳 중 6곳이 미국-이란 사태로 인한 경영상 타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배포한 '미·이란 사태 관련 광주·전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수출기업 151개사 중 59.0%(89개사)가 미·이란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높은 중동 수출 비중으로 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46.6%로 미국(15.8%), 중국(14.5%) 등 주요 시장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곧장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품목별로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컸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61.8%에 달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외에도 의료(13.5%), 첨단·에너지 산업(10.1%) 등 지역 전략 산업 전반에서 피해 응답이 이어지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물류비'였다. 주요 애로 요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25.4%가 '해상 운임 상승'을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출 물류 지연(20.0%)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13.7%) ▲바이어 주문 감소(11.7%)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해상 경로 차단과 운임 할증으로 이어지며, 지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소재 기업들은 해상 운임 상승과 바이어 주문 감소를, 전남 기업들은 해상 운임 상승과 수출 물류 지연을 주요 애로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광주·전남 지역 수출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대책은 '물류비 직접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8.2%가 '물류비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복수응답). 이어 ▲선복 확보 및 항로 다변화(18.9%) ▲수출 금융 및 자금 지원(12.6%)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

서비스·콘텐츠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물류비 지원'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

물동량이 많거나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식품(68%) ▲석유화학(65%) ▲기계·장비(5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 구조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응답 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선복 확보 지원 및 항로 다변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금융 및 자금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업종별 수요가 다른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인 기자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급랭… 한달 새 9.8p 하락

경제 불확실성·인력난 등 영향… 비제조업은 소폭 개선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악화한 반면 비제조업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재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0.7로 전월보다 9.8포인트(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 지수도 80.6으로 전월 대비 6.5p 떨어지며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크게 위축됐다.

반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4.3p 상승했고 다음 달 전망도 92.3으로 2.6p 올랐다.

전국 평균은 제조업 97.1, 비제조업 92.0 수준이다.

제조업 BSI를 보면 업황지수는 52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도 18p 떨어졌다.

생산지수(61)는 23p 하락했고 매출지수(56)와 신규 수주지수(68)도 각각 14p, 7p 감소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업황지수는 65로 전월보다 3p 상승했으며 채산성(76)과 자금사정(72)도 각각 6p, 5p 개선됐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 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쟁 심화와 경제 불확실성 비중은 감소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경제 불확실성과 인력난 비중이 늘었고 내수 부진과 계절적 요인 비중은 줄었다. /신영길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HD현대삼호